



미 증시, 기업실적 우려 완화 및 소비심리 개선되며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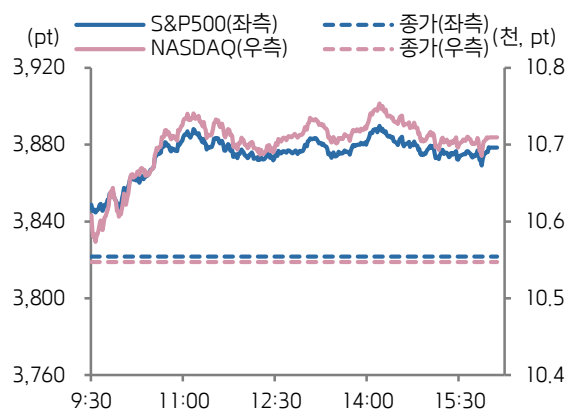
21 일(수) 미국 증시는 일본은행의 긴축 충격으로 인한 미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된 가운데, 나이키와 페덱스의 호실적 발표로 기업실적 우려 완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에 투자심리 개선되며 상승 (다우 +1.6%, S&P500 +1.49%, 나스닥 +1.54%)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예상 101.0, 전월 101.4) 기록하며 예상치를 큰폭으로 상회. 현재상황 평가지수는 전월 137.4에서 147.2, 향후 6개월 전망 기대지수는 전월 76.7에서 82.4로 큰폭 개선. 반면,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6.2%에서 5.9%로 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하락한 점 역시 긍정적.

미국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7.7%(예상 -5.2%, 전월 -5.9%)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감소. 집계측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2020년 코로나 19 경제 봉쇄 기간 동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되었다고 언급. 모기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택 구입 능력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밝힘. 가격이 가장 높은 서부지역 주택판매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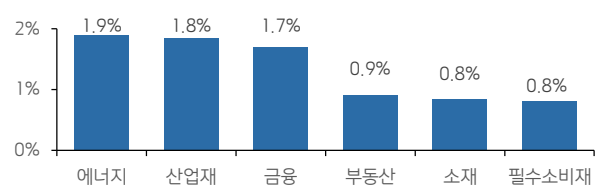
업종별로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1.9%), 산업재(+1.8%), 금융(+1.7%)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필수소비재(+0.8%), 소재(+0.8%), 부동산(+0.9%)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전일 장 마감 후 나이키(12.2%)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등. 글로벌 재고는 지난 분기 44%에서 43%로 소폭 감소했으나 북미 지역 재고가 65%에서 54%로 예상보다 크게 감소. 이에 따라 언더아머, 롤루레론 등 역시 동반상승. 페덱스(3.4%) 역시 수요 부진으로 인해 매출액은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EPS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추가 비용 절감 및 배송료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상승. 애플(2.38%), 알파벳(0.63%), 아마존(1.85%), 메타(2.28%) 등 주요 시총상위주 역시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테슬라(-0.17%) 역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퇴임 의사 밝히며 낙폭 제한.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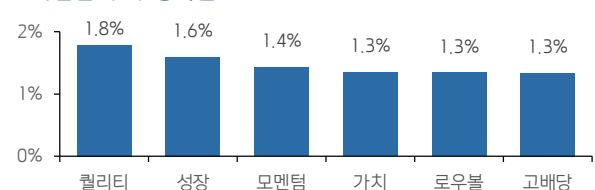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78.44	+1.49%	USD/KRW	1,285.51	-0.4%
NASDAQ	10,709.37	+1.54%	달러 지수	104.20	+0.23%
다우	33,376.48	+1.6%	EUR/USD	1.06	-0.14%
VIX	20.07	-6.56%	USD/CNH	6.99	+0.38%
러셀 2000	1,776.94	+1.65%	USD/JPY	132.39	+0.5%
필라. 반도체	2,644.50	+2.3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563.84	+1.34%	국고채 3년	3.630	-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560	-4.5bp
Eurostoxx50	3,872.15	+1.83%	미국 국채 2년	4.215	-3.8bp
MSCI 전세계 지수	602.98	+0.16%	미국 국채 10년	3.666	-1.7bp
MSCI DM 지수	2,592.86	+0.2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51.08	-0.69%	WTI	78.43	+2.89%
MSCI 한국 ETF	57.32	-0.21%	금	1824.5	-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9.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엔화 강세 및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 지속 여부 2. 예상치 부합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 및 대형주 주가 흐름 3. 거래대금 감소 및 모멘텀 부재에 따른 중소형주 순환매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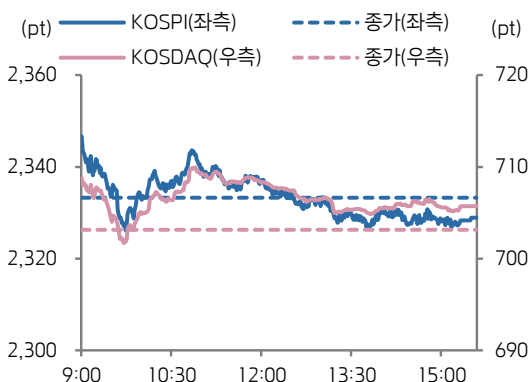
전일 미 증시의 상승 동력은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완화. 나이키의 호실적은 재고 정리를 위한 가격 인하와 강달러, 높은 운송비로 인한 마진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었고 향후 가이드언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 고용, 소득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CB 소비자신뢰지수의 개선,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중간값 6.2%에서 5.9%로 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하락), 주간 원유재고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크게 기여.

위 결과들이 반등 탄력을 제공하긴 했지만 추세적 상승 전환 가능성은 낮은 상황.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물가의 추세적 하락 확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23일 PCE 물가 지표 발표 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후에는 시장의 관심이 경기, 고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최근 스타벅스, 아마존을 비롯하여 올해 미국 내 파업 건수 및 규모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낮은 실업률로 인해 향후 기업 실적에서 인건비의 중요성이 커질 것. 3분기 실적 때 중요한 변수였던 소매업체들의 재고는 하락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일 나이키의 호실적 및 주가 급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4분기 실적시즌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효과 및 소매업체들의 인건비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판단.

21일(수) 코스피는 낙폭과대 인식 속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으나, 전체 거래대금이 9조원 수준으로 급감한 가운데 장중 20일까지 수출 및 반도체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기전자업종 및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 금일에는 투자심리 개선으로 반등한 미 증시 및 예상치에 부합한 마이크론 실적 발표 결과에 힘입어 반등 시도할 전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경기침체, 수요 부진으로 인한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한 주가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음. 23년 실적 추정치 하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이크론 실적발표 이후 대형주 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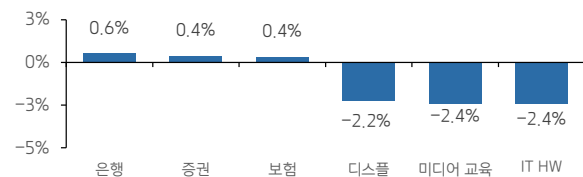
12월 거래량 급감 속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나타나는 업종은 금융, 보험, 철강금속, 기계 업종, 코스닥에서는 엔터, 디지털 콘텐츠 업종. 연말 배당 매력도 상승에 따른 배당주 강세 및 중국 경기 회복 수혜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중국 이동량의 회복은 더디지만, 정부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내년도 경제성장을 5%대 목표를 제시하는 등 리오프닝 방향성은 유효하다고 판단. 따라서 관련주들의 순환매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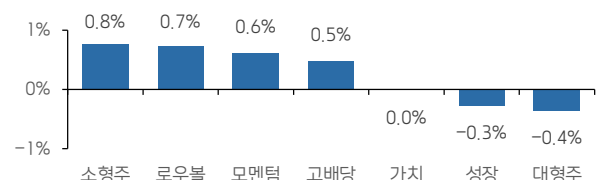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취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